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구독 후원 상담
02-2004-8212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1월 7일)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메타버스 전법 위한 종단적 큰관심 절실"

조계종 포교원, 11월 23일 포교종책좌담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메타버스 內 성보 등 재현
포교전법 아이템 무궁무진
"미래엔 메타버스 일상화
불교, 사회 안전망 역할을"
불교미디어들 접근 어려움
종단서 기반 조성, 지원을

4차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초연결성'이다.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연결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들은 이제 우리 곁으로 훌쩍 가까이 다가왔다.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Metaverse)' 다. 가공, 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생산 활동과 사회생활 등 일상을 영위하는 3차원 가상세계, 일종의 '가상 속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불교 전법과 포교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메타버스, 불교의 접근과 활용'을 주제로 포교종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불교적 활용 방법과 불교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전법 포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구현 방안'을 통해 △전통사찰·성보·고승의 메타버스 복원 및 재현 △불교 경전 서사(敍事)의 메타버스 구현 △메타버스 속 신행 체험 등을 불교계에 제안했다.

메타버스에서 사찰과 고승 등이 복원·재현되고 있음을 소개한 보일 스님은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사찰에서 주지 스님을 주도로 마인크래프트나 제페토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찰을 창건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불상, 성보 등을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자들로 하여금 신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역사 문헌으로만 존재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을 현재화 하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일 스님은 메타버스 공간의 '초연결성'을 주목하며, 언제 어디서나 불교 신행과 명상 수행들이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2021년 월정사에서는 '세계 청소년 명상 주간' 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명상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지도받게 했다"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메타버스에서는 국내를 넘어 해외 교포와 현지 외국인까지도 포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아무리 메타버스가 다방면에 적절한 방편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기존 신도나 새로운 불자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견인하고 동참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지속적 관심이 종단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현덕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조교수는 메타버스 사회에서 불교가 사회적·정신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조교수는 "메타버스와 첨단 기술의 발전이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겠지만, 사생활 보호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메타버스 내 범죄, 집단 따돌림, 정신적 피로가 생길 것"이라며 "불교는 메타버스에서 사회의 안전망 역할, 정신적 치유를 통한 대중 치유를 목표로 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유권준 불광미디어 콘텐츠실장은 메타버스를 불교언론과 미디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폈다. 그는 "불교언론이 기초적 디지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불교언론은)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인력과 기술력 확보 등에서 취약하다. 종단에서 정부 지원 사업 등을 개발·유치해 불교미디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사찰 김치, 어르신께 전해요

안성시노인복지관에 전달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은 11월 2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 향적세계에서 '같이나눔 사찰음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찰음식 강사 홍승 스님의 지도로 자원봉사자 13명이 사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김치를 담갔다. 이날 제작된 김치는 800kg, 300포기 분량으로, 11월 24일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법계도 사과無·문전박대… "가톨릭 본모습 봤다"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 10여명 서울대교구·서소문博 항의방문

종회서 면담 요청공문 송달에도
일반행정직 과장 직원이 응대해
서소문博 관장 신부의 사과없이
"작가 동의없어 못해" 변명일관

"불교계가 사찰에 찾아온 가톨릭 신부와 수녀님들을 이렇게 대했습니까? 이웃종교 성직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가톨릭 서울대교구청 청사 1층 안내데스크. 조계종 중앙종회 대표단 스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님들은 가톨릭 서소문역사박물관에 전시됐던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왜곡한 도상을 항의하고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11월 18일 명동성당에 위치한 가톨릭 서울대교구를 찾았다.

대표단은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심우·제정·진각·학암 스님 등 중앙종회 대표단과 총무원 사회국장 현우·해인사 사회국장 일휴·대장경보존국장 일한 스님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대표단과의 원활한 만남을 위해 중앙종회의장 명의의 공문을 가톨릭 서울대교구에 보냈으나 교구 측은 신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과장급 직원을 내세워 스님들을 돌려보냈다. 과장급 직원은 "조계종에 보낸 회신 공문 마지막 부분에 (방문 거절)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지만,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회신공문에서 "서소문역사박물관의 문제이므로 향후 본 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물관 측과 협의해달라"고만 게재했다.

이에 대표단은 "해당 내용으로 방문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은 공문을 보낸 단체의 입장"이라며 "어떻게 이 내용을 갖고 만남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아예 박물관과의 문제이니 면담 자체를 거절한다고 보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선광 스님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온 것이 아니라 중앙종회의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갖출 절차는 모두 갖췄다고 본다"며 "한국 가톨릭 교회에 유감을 표한다. 향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톨릭쪽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18일 갈등의 시발점이 된 서소문역사박물관을 찾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변호사를 대동한 박물관 측은 초상권과 녹취를 운운하고 형사 문제를 언급해 대화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선광 스님(오른쪽)과 심우 스님이 11월 18일 항의방문 일정을 마치고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방문에 앞서 대표단은 갈등의 시발점인 서소문역사박물관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소문역사박물관 측은 "작가가 인정하지 않아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도리어 박물관 측 법률대리인으로 배석한 변호사는 초상권과 녹취를 운운하고 형사 문제를 언급해 종교인 간의 대화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변호사의 발언에 대표단 스님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광 스님은 "법계도 왜곡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고, 양 종교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라며 "시작부터 초상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냐"라고 힐난했다.

서소문역사박물관장 원종현 신부는 "(변호사를 대동한 것은) 이런 환경이 익숙치 않아서"라고 해명하며 "불교계의 문제 제기 이후 법계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11월 14일 전시된 작품을 내리고 다시 제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신부는 "법계도는 2019년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인간문화재 장인들이 작품을 제작·기증해 전시하게 된 것이다. 스님들을 모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기증한 작가가 인정하지 않은 무단도용을 박물관이 사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조계종 대표단과 서소문역사박물관 측의 대화는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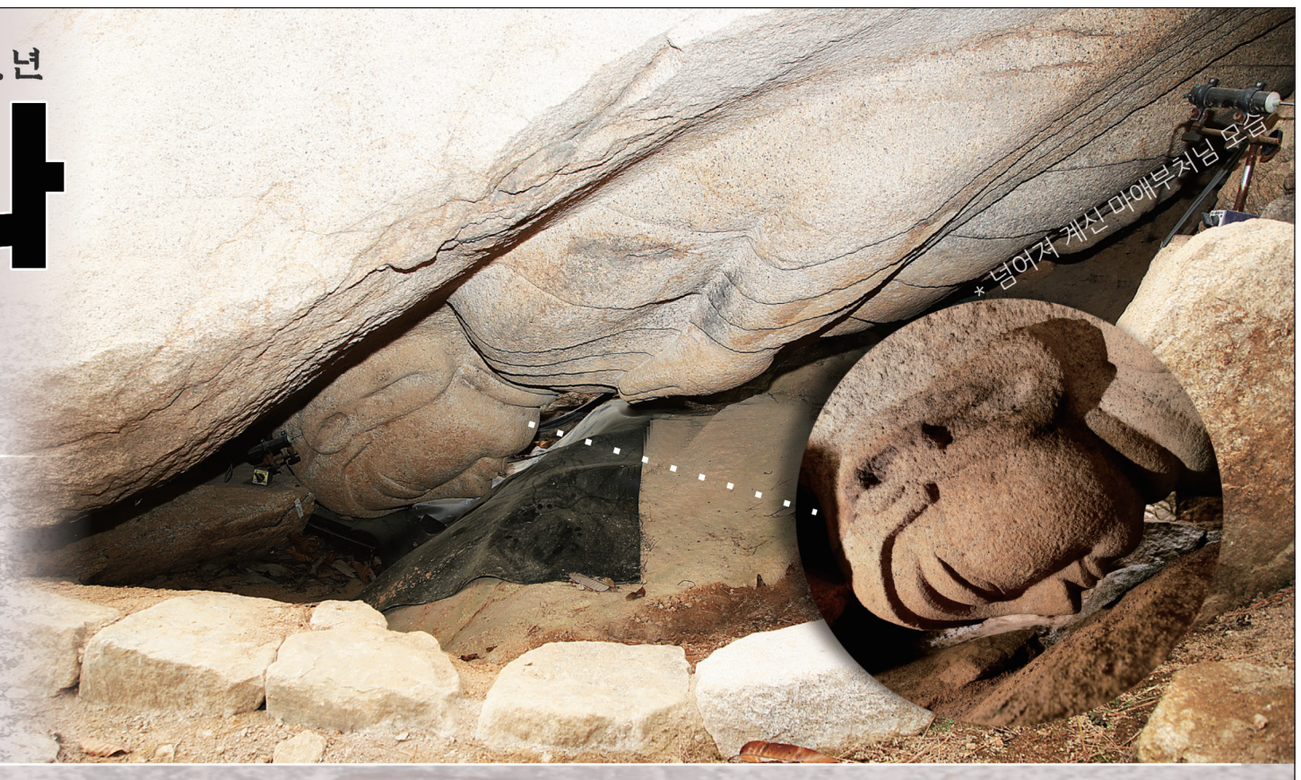
방문 일정을 마친 조계종 대표단은 "앞으로 활동해야 할 일들을 목도했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심우 스님은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임에도 가톨릭이 역사를 왜곡하며 갈등을 유발함에도 한마디 사과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웃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현재 한국 가톨릭의 본모습이다. 한번 더 불교가 어떻게 역사 왜곡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됐다"고 밝혔다.

선광 스님은 "오늘 가톨릭 서울대교구 명당성당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목도했다"며 "앞으로 불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톨릭이 전통을 왜곡하고 불교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도록 하겠다.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민 기자

과.거.천.년. 미.래.천.년
천년을 세우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경주 남산 마애 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민족의 문화 자산을 천년이 넘도록 넘어진 채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넘어진 천년을 일으켜 세운다면
앞으로 천년동안 국운이 창성하고 국민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2022.10.5. 총무원장스님 취임사 중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후원계좌 농협은행 301-0248-0882-41,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동참문의 02-6273-0108~9 · ARS 060-700-0012 (한통화 3,000원)
대한불교조계종